

시연(施連) 칼럼

좌윤공佐尹公, 부정공파副正公派 후손들의 각별한 우의友誼

분호천지노(憤號天地努) 분해 소리치면 천지도 노하고 원음귀신비(冤泣鬼神悲) 원통해 울면 귀신도 슬퍼하누나
오봉공문집 五峰公文集 유시 遺詩에서



글 : 권오신
안동권씨 좌윤공파종회 회장

칠자(七子) 삼녀(三女)에, 형제의 문과급제(文科及第)로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크게 넓히신 고려 감찰어사(監察御史) 문정공(文靖公, 諱 희정希正 16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좌의정左議政 주증)의 후손들과 고려 공민왕(恭愍王) 21년(1372, 壬子) 안동부(安東府) 성남리(城南里)에서 태어나신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諱 전평) 경혜공(景惠公)의 후손들과과는 단종(端宗) 사화의 참화를 겪었던 가치관(價値觀)으로 인해 그 우의가 지금껏 각별하다.

더욱이 안동시 북후면 잣밭골(오산리)로 흘러 내린 산허리 이쪽저쪽에 써진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과 좌윤공파(佐尹公派) 율대 묘소에 인해 살아서도 죽어서도 같은 처마를 이고 사는 형국이다.

단종(端宗) 사화를 피해 경상도 영해(寧海)지방으로 피신하신 오봉공(五峰公, 諱 책策)이나 연일(延日) 대잠산(大岑山)에 유배(流配), 100년 금고형(禁錮刑)에 묶인 문정공(文靖公)의 증손(曾孫)이신 죽림공(竹林公, 諱 산해山海) 사정공(司正公, 諱 수해壽海) 후손들의 행적이 시간과 장소만 틀릴 뿐 너무나 흡사하다.

두 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연일(延日, 지금의 포항시) 대잠산(大岑山)에 유배를 오신 사정공(司正公)은 해배(解配)가 된 이후에도 평생을 동구밖엔 한 발짝도 나가시지 않았다.(사정공司正公 행장行狀에서)

오봉공(五峰公) 역시 단종(端宗)이 돌아가신 날부터 이웃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엔 한 번도 긴 적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오봉선조사적五峯先祖事蹟)

사정공(司正公)은 연일(延日) 대잠산(大岑山)

배소에 향일재(向日齋)를 짓고 단종(端宗) 임금 이 계시는 영월을 향해 매일 아침 사배(四拜)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 일을 시작했으며 배소 주변에 단종(端宗) 임금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심었다. 해바라기 꽃밭이 전국에 알려져 여름만 되면 관산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후일 포항을 상징하는 꽃이 됐다.

오봉공(五峰公)의 행적도 이와 비슷하다.

매월 삭망(朔望,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날이 되면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 인랑리(仁良里) 산에 올라 노산군(魯山君)이 유배 생활을 했던 영월을 향해 분향(焚香), 눈물로 사배(四拜)를 하다 목놓아 슬피 우는 호곡(號哭)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오봉공(五峰公, 諱 책策)은 제학공(副提學, 홍문관弘文館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諱 자홍自弘)의 셋째 아들로 세종(世宗) 26년(1444)에 태어났다.

자는 경지經之, 호가 오봉(五峰)이며 교리(校理, 홍문관의 정오품 벼슬)를 지내신 두 형(諱 諱 저팔/ 서팔)을 뒀다. 오봉공(五峰公, 諱 책策)은 세조(世祖) 2년(1456) 사육신(死六臣)에 의해 추진됐던 단종(端宗)복위 거사가 실패로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諱 경혜公景惠公, 諱 전평)의 가문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입을 때가 13살이었다.

정삼품(正三品) 당상관이자 청백리의 백미로 존송을 받았던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에 오른 제학공(副提學, 諱 자홍自弘)은 단종(端宗) 손위(遜位, 임금의 자리를 넘김)와 육신(六臣)의 난 때 종제(從弟, 諱 자신自愼)가 거역 되는 등 경혜공(景惠公) 일문이 세조가 벌인 독수(毒手)에서는 간신히 피했으나 경상도 순흥(順興)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던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우李瑜)이 사사(賜死)되는 참변은 피하지 못했다.

세조 3년(1457)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 홍문관 종오품직)였던 두 아들(諱 저팔/ 서팔)과 아버지(提學公)에 이르는 삼부자三父子는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형사(刑死) 순절하신다. 제학공(提學公)의 배위(配位)도 이때 순사(殉死, 남편을 따라 죽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소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수양대군(首陽大君, 후일 세조世祖)가 일으킨 참화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제학공(副提學, 諱 자홍自弘)의 셋째 아들이신 13살의 오봉공(五峰公, 諱 책策)은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사사(賜死)되기 앞서 부친(父親)이신 제학공(提學公)의 기지로 영해로 피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미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제학공(提學公)은 금성대군(錦城大君)의 거사 전 셋째 아들이신 오봉공(五峰公)을 순흥에서 멀리 떨어진 영해 바닷가로 보내었다.

오봉공(五峰公, 諱 책策)은 세조 2년(1456) 병자(丙子) 13살 때 사육신(死六臣)의 단종(端宗)복위 실패로 당숙이었던 총장공(忠莊公, 諱 자신自愼)이 거열형(車裂刑)으로 먼저 순절(殉節)하고 교리(校理 백중공伯仲公, 諱 저팔/ 서팔)를 지낸 두 형마저 가혹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형사(刑死)를 되는 참혹한 현장을 지켜본 유일한 후손이 됐다.

당시 문종비(文宗妃) 현덕왕후(玄德王后, 태종 18년 1418년 출생)의 동생이었던 총장공(忠莊公, 諱 자신自愼, 諱 경혜公의 장자, 예조판서)이 가장 먼저 화를 입는다. 단종(端宗)의 외숙(外叔)이 되는 총장공(忠莊公)은 1453년(계유癸酉)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즉위 한 해에 삼등좌익공신(三等佐翼功臣)에 책록됐다. 그 이듬해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오르지만 바로 사육신(死六臣)의 단종(端宗)복위 실패로 부인(夫人)과 함께 국문을 만나 거열형(車裂刑)으로 순절했다.

제학공(提學公) 역시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세조 3년 순흥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금성대군(錦城大君)의 거사가 실패로 형사(刑死)하게 된다.

여아(女兒)는 종으로 삼고 사내는 적막이조차 도록됐던 당시의 독수(毒手)에서 신분이 드러나면 보천지하(普天之下, 어느 곳에서나)에서 살길이 없었던 시대상황을 피해 핏줄을 이어갈 길 영결명(永訣命)으로 평해(平海)의 당숙을 찾게 한 부정(父情)의 선택이 돋보인다.

평해(平海)로 가려면 지금도 영해(寧海)를 지나야 한다.

영해를 지나던 오봉공(五峰公)의 비범한 모습이 당시 이 지방의 후덕한 군자(君子)였던 평산신공(平山申公)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서 학문을 배우고 청년기를 맞았다. 후일 평산신공(平山申

公)의 사위가 되면서 영해와 이웃한 창수면 인랑동 나랫골이 세거지가 됐다.

안동권씨 부정공파(副正公派) 영해문중(寧海文中) 권병윤(權炳潤, 74) 회장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금성대군(錦城大君) 거사 실패 소식을 들은 오봉공(五峰公)은 순흥을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을 두고 고통(叫痛,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함)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해 10월 24일 영월(寧越)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단종(端宗)이 시해(弒害)된 비보를 듣고는 바로 왕암(王巖, 창수면 인랑리 소재)에 올라 통곡을 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삭망(朔望)엔 사배(四拜)를 빠트린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오봉공(五峯公)은 혼절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하니 몸은 소년이었지만 정신세계는 성인이 이르렀다고 후인들이 적었다. 오봉공(五峰公, 諱 책策)의 비문(碑文)에 기록된 편관녹사(編管錄事)는 당시 나이로 짐작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금성대군(錦城大君)의 의거 실패로 부친(父親, 제학공提學公)까지 잃은 공공은 그로부터 이웃과의 담소를 끊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단종을 향한 수절신(守節臣)으로 평생을 사셨다. 임종(臨終) 때 후손들에게 "영답을 구하지 말라"는 문자유언(文字遺言)과 오봉집(五峰集)과 실기(實記)를 남겼다. 오봉(五峰公)의 사적은 명현록(名賢錄)과 단양지(丹陽誌)에도 기록됐다.

묘소는 영덕군 창수면 미국리 너우내 큰 줄기에 술좌(戌坐, 술방을 등진 자리)에 배위(配位)인 평산신씨(平山申氏)와 앞뒤로 썼다. 배위(配位)이신 평산신씨(平山申氏) 사이에서 승의부위(承義副尉)를 지내신 인형(仁衡)공공을 뒀다. 영해 일대에 사는 안동권씨는 승의부위공(承義副尉公)의 후손이다.

후일 숙종(肅宗)조에 들어 지역유림들의 발의로 너우내 묘소 아랫자리에 대봉서원(大峰書院)을 짓고 총장공(忠莊公, 諱 자신自愼)을 주벽(主壁)에, 오봉공(五峰公)과 7대손 남곡(南谷) 상길(尙吉)을 배향하다 고종(高宗) 5년(1868, 무진戊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잠시 훼손되었지만 1912년부터는 경모재(景慕齋)를 창건했다. 후손들은 일생을 두고 영월을 생각했던 오봉공(五峯公)의 정신을 기려 망월당(望越堂)으로 헌액했다.

1923년엔 충청도 유림이 낸 의견에 따라 공주 계룡산(鷄龍山) 동학사(東鶴寺) 속모전(肅慕殿, 장릉절신莊陵節臣을 모시는 곳)에도 배향됐다. 또 오봉공(五峯公)이 단종(端宗) 임금을 생각하면 목놓아 울었던 바위에 왕암(王巖)을 새겨 사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절의정신(節義精神)이 관습이 된 영해 문중은 종사(宗祀)에도 관심이 깊어 1976년 경주 윤곡서원(雲谷書院)이 중창될 즈음 전국 중중에서 가장 먼저 시조 배향 건을 대당회에 올려 성사시켰다.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의 만사위가 좌윤공파(佐尹公派) 19세 죽림공(竹林公, 諱 산해山海)이시다. 경혜공(敬惠公)의 만사위가 되신 죽림공(竹林公)은 세조 22년(1440)부터 벼슬이 내려졌으나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나 단종(端宗) 2년(1454) 선왕(문종文宗)으로부터 임은 은혜를 갚기 위해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을 맡으셨다.

1454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王位)를 빼앗자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예전에 은거하면서 사육신(死六臣)과 더불어 복위운동에 나섰다. 1456년 김질의 밀고로 성삼문(成三問) 등 육신(六臣)이 화를 입는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울며 탄식하기를 "네 홀로 살아서 사직을 바로 잡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오"라는 긴 탄원을 남기시고 누대에 올라 순절의 길을 택했다.

이로부터 좌윤공(佐尹公)과 후손들의 수난이 시작된다. 먼저 죽림공(竹林公)의 동생이신 사정공(司正公, 諱 수해壽海)은 경상도 연일(延日) 땅으로, 형의 넷째아들(諱 철손哲孫) 판관공(判官公)을 업고 유배길에 올랐다.

또 죽림공(竹林公)에게 글을 가르친 종조부(從祖父) 문경공(文景公, 諱 진軫, 세종 때 좌의정)에게도 화가 미쳐 그 자손들이 김천 강원도 원주 고성 등지로 피신을 했으며 또 다른 종조(從祖)이셨던 판도공(版圖公, 諱 국獻)과 현령공(縣令公, 諱 지輶)의 자손들 역시 영양 영주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100여 년간 숨어 살았다.

이런 가치관(價値觀)은 5백 년이란 긴긴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담겨 있었다.

〈자료출처: 오봉선조사적五峯先祖事蹟, 안동권씨 좌윤공파세보安東權氏佐尹公派世譜,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민섭